

2026년 1월 21일

| 경건의 시간 |

마태복음 5:17~26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  
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  
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

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  
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  
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  
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  
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  
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아멘).

## | 맥체인 성경읽기 |

### 창세기 22장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  
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  
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  
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  
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듣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  
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  
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  
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  
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  
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  
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  
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  
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

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  
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  
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  
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  
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  
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  
였더라 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  
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 마태복음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  
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  
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  
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  
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  
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  
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  
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  
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  
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

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  
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  
는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5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  
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  
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  
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  
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  
라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  
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  
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  
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  
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

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  
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  
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  
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  
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  
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

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좁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

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

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 느헤미야 11장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  
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 예루살렘  
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  
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  
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 예루살렘에 거  
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  
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  
의 증손이요 스바댜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  
대 손이며 5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  
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  
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6 예루  
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루

이니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  
야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사  
야의 칠대 손이며 8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  
이니 모두 구백이십팔 명이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  
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둑의 오대  
손이며 12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  
두 팔백이십이 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  
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

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 손이요  
말기야의 육대 손이며 13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이백사십이 명이요 또 아맛새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새의 손자요 므실  
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14 또 그들  
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백이십팔 명이  
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15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  
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16 또 레위 사  
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  
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이니 그는 기  
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

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18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느니라 19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백칠십이 명이며 20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21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22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트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벤벨렛과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30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31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

에서부터 믹마스과 아야와 벨엘과 그 주변 동  
네들에 거주하며 32 아나돗과 뇨과 아나냐와  
33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4 하딧과 스보임  
과 느발랏과 35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  
기에 거주하였으며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 사도행전 21장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  
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  
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

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

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  
을 들으리니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  
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그들을 데  
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  
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  
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 주  
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  
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 바울이 이 사람  
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  
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  
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  
니라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  
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  
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  
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  
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32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  
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  
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  
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  
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  
려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37 바울을 데리고 영  
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